

KNTA News

서울

2007년 노숙인 결핵검진



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서울시 노숙인 자립지원반, 시립서북병원과 함께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에 걸쳐 서울역 및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결핵검진을 실시하였다.

종전에 실시하던 이동검진(간찰엑스선검진)은 필름현상 후 판독 등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노숙인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환자들에 대한 추적 및 추구 관리가 어려워 효과적인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.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노숙인 검진은 DR 엑스선장비를 이용, 엑스선 촬영 후 현장에서 방사선 전문의가 진단, 판독하여 환자가 발견되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서북병원에서 입원시킨 후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환자 형편에 따라 보건소에서 주거관리를 받도록 했다.

서울지부는 이번 검진을 통해 총 612명의 노숙인 검진을 실시하여 1명의 폐렴환자와 13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했으며, 이중 2명은 전염성이 있는 도말양성자 환자로 서북병원에서 즉각조치토록 했다.

서울지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연 1회 이상 노숙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, 검진항목도 결핵 외 성병, 간염 등의 전염병과 알콜 중독 및 정신질환

자까지 확대, 환자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진료조치 등 노숙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 (소식)

_ 이승호 서울지부 사무국장

대전·충남

세계 금연의날 캠페인 참석



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5월 30일은 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열린 세계금연의날 캠페인에 사무국장 외 직원들이 참석, 금연결의대회에 참여하고 금연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섰다.

국립공주대학교 특강



지난 6월 1일(금) 대전충남지부 김문갑 검사사업팀장은 공주대 보건학부 교수 및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'결핵예방 및 관리와 크리스마스 썰'을 주

제로 특강을 실시했다.

결핵의 기원과 발견, 결핵의 심각성과 각종 통계, 결핵의 발병기전과 감염경로, 예방관리, BCG접종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사업 전반과 크리스마스 쌀에 대해 이야기 한 이번 강의는 결핵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, 관심조차 없었던 보건학부 학생들에게 결핵 및 크리스마스 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. (소식 _ 김경환 대전·충남지부 행정지원팀)

결핵 연구원 マイコ박테리움 균주은행 개소



지난 6월 2일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김성규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코박테리움 균주은행 개소식을 갖고, 향후 결핵 및 비결핵마이코박테리움 균주의 보관 및 분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.

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결핵약제 감수성검사 및 비결핵마이코박테리움(NTM) 동정검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결핵연구원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항결핵약제 내성균 및 NTM 균종을 분리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균주은행을 통해 마이코박테리움 균주자원 수집 및 정보체계, 마이코박테리움 분양 시

스템, 마이코박테리움 자원의 장기저장 시스템, 마이코박테리움 자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이코박테리움 균주 및 유전자원 관련 workshop, 세미나, 심포지움 등 개최마이코박테리움 자원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
이로써 결핵연구원은 분산되어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관련 연구 소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.

LG생명과학과 양해각서 체결



결핵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 결핵연구원 대강당에서 LG생명과학 관계자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, 앞으로 우리나라 결핵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LG생명과학은 바이오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결핵연구원에 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5년에 걸쳐 지급하고 약 1억원어치의 장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.

또한 결핵연구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결핵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임상평가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LG생명과학의 연구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, 결핵 연구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.(소식 _ 박연숙 본지기자)